

제 4 회 한일 합동 심포지엄 개회 인사말

일본의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 年~1912 年)이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빈번하게 왕래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일본국 및 개개(個々)의 일본 국민이 한국 및 한국 국민에 대하여 했던 일에 대해, 한국 국민이 화를 내야 할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고 해도, 1910 년 한일병합(韓日併合) 이래, 일본이 국가로서 한 것은, 한국내에 있어서 근대국가의 제도를 정돈(整頓)해, 경제의 발전의 기반을 만든 측면이 있는 것도 진실입니다.

한국은 중국 대륙에 이어지은 반도 국가로, 항상 중국 왕조의 위협을 받으면서 국가의 운영을 해 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 왕조의 책봉국(冊封國) 이면서도, 한 번도 중국에 지배당 한 적은 없어 국가로서의 존속을 유지해온 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한편, 일본은 중국 대륙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바다에 둘러싸인 섬나라이며, 중국의 왕조의 위협을 항상 받는다 는 일이 없이 국가의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고대부터 야마토 조정(大和朝廷)을 발상으로 하는 하나의 왕조로서 독자적으로 존속해온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러한 지정학(地政學) 적 조건 하에서 한국에 있어서는 지배계급인 양반은 중국 왕조의 존재를 내세워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에 만 전심 하고, 일반 국민이 안전하고 풍부하게 생활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오랜 역사에 있어서,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국가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발전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중국에서 침략당하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고, 그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주변에 타국의 위협이 없고, 지배계급인 무사(武士)는, 서민의 안전을 보장해,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지배계급의 사명인 것을 자각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점에서 볼때, 일본 국민의 의사에 근거해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메이지 시대에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일본 국민은, 한국 국민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풍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정학적인 원인을 바탕으로 생겼다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문화적 상황 하에서, 일본이 메이지 시대에 들어가, 한국과 일본 사이를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게 된 것에 따라, 일본국 및 개개의 일본 국민의 한국에서의 우세한 입장에 입각한 행동이, 한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10 년의 한일 병합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서양 국가의 식민지 정책과 같은 말로 "식민지 정책"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다고 해도, 일본 국가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한국 내에서 근대국가로서 필요한 제도를 정돈해,

경제적으로도 일본 본토와 같이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구미 제국의 식민지 정책과 같은, 단지 식민지를 착취하기 위한 식민지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21 세기의 현시점, 한국과 일본은, 극동에 있어 세계 유수의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존엄(尊嚴)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립하고 있습니다. 이 양국이 친화(親和)를 깊게 하고 협력하는 것은 양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개최하는 한국과 일본의 합동 심포지엄은 이번으로 4 번째가 됩니다만, 이번은, 한국과 일본의 쌍방에서, 다음 시대를 떠맡게 되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거짓말이 쓰여져 는 안된다 라는 것을 테마로 하고,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쌍방, 민간인으로서, 「한일의 진정한 화해를 목표로 해서」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위안부 상철거 활동과 한국학교 교과서 문제과 씨름 해 오신 김병헌선생과 한일 양국의 역사·문화에 조예의 깊은 오선화 선생을 초대해, 한일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해 주십니다.

훌륭한 성과가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여, 나의 인사말로 합니다.

레이와 7 년 11 월 27 일
(일반사단법인) 국제 역사 논전 연구소
회장 스기하라 세이시로